

골...골... 한동원 빛났다

베어백호, 우즈벡 2-0 꺾고 3연승 '휘파람'

올림픽축구 아시아 지역 예선

한국 축구가 시원한 3연승으로 베이징올림픽을 향한 2차 예선 여정의 반환점을 돌았다.

'차세대 스트라이커' 한동원(21·상남)은 탁월한 골 감각으로 두 경기 연속 두 골을 터뜨리며 베어백호의 새로운 해결사로 떠올랐다.

김 베어백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축구대표팀은 28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F조 3차전 우즈베키스탄과 홈 경기에서 혼자서 2골을 터트린 한동원(상남)의 원맨쇼를 앞세워 2-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예선전(1-0 승)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3-1 승)전에 이어 3연승을 달린 한국(승점 9)은 우즈베키스탄(2승1패·승점 6)에 승점 3점차로 달아나 F조 1위를 지켰다.

UAE전과 똑같이 4-3-3 전술에 양동현(울산)을 원톱으로 세우고 좌우 측면에 이근호와 이승현(부산)을 배치한 한국은 측면 공략에 사활을 걸고 우즈베키스탄 공략에 나섰다.

하지만 3-5-2 전술로 중원을 두텁게 쌓은 우즈베키스탄은 미드필드 지역부터 강한 압박으로 한국의 공세에 맞불을 냈다.

전반 시작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미드필더 아메도프 오달에게 위협적인 중거리포를 내준 뒤 반격에 나선 한국은 곧바로 한동원의 코너킥을 중앙 수비수 강민수(전남)가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향하지 못했다.

또 오장은(울산)과 백지훈(수원)이 나란히 선 중앙 미드필더 라인이 공세 때 전진을 하지 않아 매끄러운 2선 공격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경기는 소강상태에 빠져들었다. 이때 한동원이 구세주로 등장했다.

최전방 공격수 양동현(울산) 밑에 처진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한 한동원은 전반 33분 이근호(대구FC)의 크로스를 골 지역 정면에서 받아 감각적인 헤딩 슈트로 골문을 갈랐다.

이어 후반 39분에는 우즈베키스탄 수비수가 헤딩으로 걷어낸 볼을 아크 오른쪽 지역에서 오른발 눈스톱 슈트로 상대 골문 왼쪽 모서리에 꽂히는 두 번째 골을 뽑아냈다.

김 베어백 감독은 한동원이 승리에 췌기를 박는 골을 성공시키자 두 손을 번쩍 들며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2차 원정경기(3-1 승)에서 혼자서 두 골을 몰아 넣은 데 이어 두 경기 연속 2득점.

베어백호 올림픽대표팀이 출범한 지난해 11월 일본과 친선경기부터 대표팀 명단에 들고도 당시 한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했던 설움을 깨끗이 날려 버리는 순간이었다.

한동원은 또 후반 7분에는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왼발 인사이드 슈트로 상대 골키퍼의 간담을 서늘게 했고 37분에는 아크 오른쪽 지역에서 기습적인 강슛을 날리는 등 상대 수비진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주전 공격수 박주영(FC 서울)이 지난 예선과 1차전에서 '배치기 퇴장'으로 이날 경기에도 뛰지 못해 대신 출전 기회를 얻은 한동원은 자신에게 신임을 보낸 베어백 대표팀 감독의 기대에 100% 이상 부응한 셈이었다.

또 경기 내내 공격과 수비에서 몸을 아끼지 않은 적극적인 플레이로 스타디움을 메운 관중 3만 2천여 명에게서 박수 갈채를 받기도 했다. 스트라이커와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는 한동원은 비록 스물 한 살이지만 K-리그 6년 차인 베테랑이자 한국 프로축구 최연소 출전 기록(16세 1개월)을 보유한 주인공이다.

한편 한국은 4월18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과 원정 경기로 4차전을 치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나도 스타”

28일 오후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2008 베이징올림픽 2차 예선 조별리그 F조 홈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 한동원이 두번째골을 성공시킨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 챔프 2연패

삼성화재 3-2 꺾고 3연승

챔피언 결정 3차전

현대캐피탈이 삼성화재의 겨울리그 열 번째 우승 꿈을 깨뜨리며 프로배구 2연패에 성공했다.

“장신군단” 현대캐피탈은 28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벌어진 힐스테이트 2006~2007 프로배구 남자부 챔피언결정 3차전에서 손 투니(30점)의 활약과 철벽 센터진을 앞세워 삼성화재와 풀 세트 접전 끝에 3-2(25-21, 20-25, 25-27, 25-14, 15-12)로 꺾었다.

이로써 현대캐피탈은 5전3선승제로 치러진 챔피언결정에서 내리 3연승, 지난 해 통합우승에 이어 두 시즌 연속 우승컵에 입맞춤했다.

챔프전 직행 티켓을 빼앗겨 대한항공과 플레이오프에서 맞붙은 현대캐피탈은 상대를 2전 전승으로 일축한 뒤 챔피언결정에서도 라이벌 삼성화재에 단 1승도 내주지 않는 최강 전력으로 완벽한 우승을 이뤘다.

반면 프로 원년까지 겨울리그 9연패 위업을 이뤘던 삼성은 정규리그 1, 2, 3라운드 승리 후 챔프 3차전까지 현대에 내리 6연패를 당하며 열 번째 정상 등정의 꿈을 접었다. 이날 최고의 활약을 펼친 투니는 지난해에 이어 챔피언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투니는 기자단 투표에서 38표 중 20표를 얻어 11표를 얻은 후인정과 7표의 권영민을 제치고 상금 500만 원을 덤으로 받았다.

한편 수원에서 열린 여자부 챔피언결정전 3차전에서 흥국생명이가 김연경의 32득점 활약으로 현대건설을 3-1(19-25, 25-17, 26-24, 26-20)로 꺾고 2승 1패를 기록했다. 4차전은 오는 31일 오후 5시 수원체육관에서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관왕 향한 ‘인간어뢰’ 장착



박태환, 내달 1일 1,500m 우승 대비 몸 만들기 돌입

■ 세계수영선수권

‘재대로 한번 물어보자’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고 있는 제12회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기적을 만들어 가고 있는 ‘마린보이’ 박태환(18·경고)이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있다. 박태환은 3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멜버른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펼쳐지는 대회 남자 자유형 1,500m 예선을 치른다. 예선을 통과한 8명은 다음달 1일 오후 결승에서 만난다. 이번 대회에서 25일 자유형 400m 금메달에 이어 27일 자유형 200m 동메달까지 거점없는 질주를 계속하고 있는 박태환의 상대는 장거리 세계 최강 그랜트 해켓(27·호주). 해켓과 박태환은 25일 경영 첫날 결승에서 맞닥뜨렸고 박태환이 한국 수영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따내며 호주의 자유형 400m 종목에서 14년 동안 1인자로 군림했던 해켓을 ‘KO’ 시켰다. 하지만 당시 대결은 전초전에 불과했다. 해켓은 무려 10년 동안 1,500m에서 금메달을 한 번도 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14분34초56의 세계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 수영의 지존이다. 박태환으로서 자신이 어렸을 적부터 우상으로 삼아왔던 해켓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기회를 잡은 셈이다. 박태환과 해켓은 처음부터 맞닥뜨린다.

공교롭게도 예선 같은 조에 편성된 것이다. 박태환과 해켓은 5조에서 함께 예선을 치른다.

조 편성은 지난해 롱코스(50m) 자유형 1,500m 기록에 따라 결정됐다. 박태환은 지난해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14분55초03의 기록을 내 유리 프리루코프(14분51초93·러시아), 마테우츠 소리모비츠(14분52초76·폴란드)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다.

전체 7개 조 가운데 7조 4번 레인에 프리루코프, 6조 4번 레인에 소리모비츠가 각각 배정받았고 박태환은 5조 4번 레인에서 뛰게 됐다.

해켓의 작년 기록은 6위여서 박태환이 뛰는 5조 5번 레인을 받았다. 박태환이 해켓을 꺾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해켓은 2005년 말 어깨 수술을 받은 이후 처음 출전하는 대회여서 훈련량이 극히 부족한 상태다. 반면 박태환은 아시안 게임 직후 한 달 가량 운동을 쉬었지만 2개월 간 맞춤형 훈련을 소화하며 체력을 급격히 향상시켰다.

박태환은 27일 자유형 200m에서 동메달을 딴 이후 “오늘은 폭 자고 내일부터 자유형 1,500m 결승에 대비해 몸 만들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